

용접 · 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10대 안전수칙

① 작업장 반경 11m이내에는 가연성 물질과 인화성·폭발성의 위험물을 제거하여야 합니다.

※ 폭발물·가연성 물질을 담은 용기 작업 금지(부득이한 경우 불활성 가스 대체 후 실시)

② 안전거리 확보(11m)가 곤란한 경우에는 불씨가 날리는 것을 막는 방법(불꽃받이 또는 방염시트)으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
③ 작업장 주변에 소화기, 마른모래 등을 비치하고 소화전이 있으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호스를 준비하여야 합니다.

④ 화재감시인을 배치하여 주변을 감시하게 하거나 유사시 소화기·마른모래소방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.

⑤ 작업장의 시설주, 안전관리자에게 미리 이야기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용접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.

⑥ 실내의 다른 작업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주변의 모든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.

⑦ 옆으로 튀는 불꽃을 확인하여 다른 장소에 떨어지거나 불이 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.

⑧ 가스 용기는 용접작업장과 먼 곳에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하고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.

⑨ 작업장내에는 통풍·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.

⑩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하고 옷에 묻은 먼지를 털기 위해 산소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.